

# “이슈 있는 미술관... 다양한 미술담론 기대”

예술 담론 생산 공간 꿈꾸는 '산수미술관' 개관

조선대 장민한 교수 일반집 개조해 전시장 마련

“작가·비평가·시민 등 함께 토론장 만들 것”

‘서사와 담론’ 시리즈 ...19일까지 강운 작가 초대전

“광주에서는 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좀처럼 볼 수 없는 걸까? 그런 대화를 나눌 장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6년 전 광주로 내려와 조선대에서 미술이론을 강의하는 장민한 교수는 늘 ‘담론의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올 초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2층 가옥을 개조해 문을 연 ‘산수미술관’은 그 고민에서 출발한 작은 걸음이다.



강운 작 '공기와 꿈'

장 교수는 넓지 않은 공간이라도 우리 시대, 우리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논의를 풀어나가는 사랑방 같은 곳,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장 교수는 40년된 점집을 리노베이션 해 1층과 지하 1층에 기획 전시 공간을, 2층에 학예연구실, 수장고를 마련했다. 현재 2층에는 드로잉 상설 전시공간을 준비중이다.

산수미술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 중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공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반갑다.

“광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와 문화 전당 등 인프라들은 잘 갖춰진 데 비해 예술담론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공간들은 별로 없어 아쉬웠죠. 형식의 틀 없이 자연스럽게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싶었어요. 오랫동안 작가를 지켜본 사람들이 묻고 싶었던 것, 작업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내면서 조금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슈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서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산수미술관의 지향점은 ‘이슈가 있는 젊은 미술관’, ‘동시대 예술 담론의 공간’ 두 가지다.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진행하며 아티스트 토크, 비평가 워크숍, 큐레이터 양성 교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산수미술관의 개인 초대전은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광주 지역의 동시대 미술가를 초대해 개인전을 진행하고 비평가들과 함께 그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서사와 담론 작가’ 시리즈가 첫 번째다. 또 하나의 전시는 아직 자신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비전을 찾기 위해 매체 실험을 계속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젊은 작가를 초청하는 ‘도전과 실험 작가’ 시리즈다. 두 시리즈 모두 단순히 전시 개최에 그치지 않고 작가, 기획자, 평론가, 컬렉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문을 연 '산수미술관' 전경.

터, 시민 등이 수동적 관계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사와 담론 작가’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서양화가 강운 작가로 오는 19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사실적 구상과 표현적 추상의 변주곡’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전시장이 그리 넓지 않아 최근작 정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 작가의 대표작인 구름 소재의 1998년 작 ‘순수형태 心象’부터 근작 ‘물위를 걷다’ 시리즈까지 강 작가의 작품 세계 변화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 70여점이 내걸려 흥미롭다.

지난달 말 열린 오프닝과 크리틱 시간에는 강 작가의

작품을 오랫동안 지켜본 김희량(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박남희(아시아문화전당 교육사업본부장), 정혜연(광주비엔날레 마케팅 팀장)씨와 관객들이 함께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다보니 지금까지 9차례 정도 매체와 작업 형태의 변화가 있었더군요. 초창기 구름 페인팅부터, 생태에 관한 관심으로 작업했던 종이 작업, 오랜 침묵 끝에 내놓은 한지 작업 등이죠. 구름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화폭에 담던 시절, 공기·바람·인간의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 종이와 물과 선을 긋는 최소한의 행위만으로 작업한 시리즈 등 제 작업의 변화 과정을 압축해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강운)

강 작가는 특히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던 크리틱 시간을 통해 “그림은 작가가 그리지만,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작품은 완성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금기를 깨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공간과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서사와 담론 작가’는 ‘계속’ 탐구하고 변화하는 이들을 초청할 생각입니다.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명확한 주제 의식 아래 표현방식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작업들을 시도하는 작가들을 통해 풍부한 담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도전과 실험 작가’ 시리즈는 너무 빨리 자신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찾아 반복적으로 비슷한 작품을 쏟아내는 작가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매체로 고민하며 ‘왜 붓질을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젊은 작가를 초청할 생각입니다.”(장민한)

‘도전과 실험 작가’의 첫 주자는 바다희 작가다. 앞으로 어떤 작가들이 ‘산수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 어떤 담론들이 오고갈지 기대된다. 오픈 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 062-234-97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내 집에도 그림 한점 걸어볼까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미협, 12일까지 ‘시민...’전

30만~50만원 작품 판매

“집에 그림 한 점 걸어보시는 거 어때요.”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회장 박수봉)는 지난 2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막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 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 진행한다. 당초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는 시민들 호응이 이어지면서 기간을 늘렸다.

이번 전시는 새롭게 출범한 광주미술협회 11대 집행부에서 광주미협 회원들 간

의 화합과 지역 미술애호가, 시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부담없는 가격에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에는 원로부터 신진 작가까지 총 205명의 작가가 30~50만 원 정도 가격의 1~10호 이내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장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작품 판매금은 전액 작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미협관계자는 “시민과 미술인이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통해 누구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전시”라고 말했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음악회

10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 고전음악 편’으로 관객을 만난다. 10일 오후 3시,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지난해 9월 바洛克 음악 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의 클래식 감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교육형 콘서트 시리즈다. 지휘는 정나라 경기필 하모니 부지휘자가 맡았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하나 기획이 뮤직 도슨트로 나선다.

이번 고전 음악편에서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관현악 음악의 틀을 마련한 모차르트와 하이든, 베토벤의 작품을 만난다.

첫 번째로 만날 음악가는 음악 신동 모차르트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과 ‘교향곡 25번 1악장’ 등 모차르트의 대표곡을 감상할 수 있다.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은 피아니스트 정윤정이 협연한다. 정윤정은 뉴욕 맨하튼 음악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음악대학에서 각각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 소렐 200주년 기념음악회 초청 연주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곡을 만난다. ‘놀람 교향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교향곡 94번 2악장’을 연주한다. 전석 1만 원(학생 50%)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 eif6621@

## 성악가 최철 독창회 1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지역 중견 성악가 베이스 최철(사진)이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연다.

35년의 독창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여온 그는 깊이 있는 곡 해석과 특유의 중후한 음성 등 특색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독창회서 연주되는 곡들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이 신성한 전당에서’, 이태리 작곡가 토스티의 가곡 중 ‘괴로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슬픔’, 포레의 프랑스 가곡 중 ‘달빛’, ‘요람’, ‘무덤에서’ 등을 준비했다. 또 조두남의 ‘벚노래’, 우리 민요 ‘신고산타령’,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 조콘다’ 중 ‘내 선조들의 그림자’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 씨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동대학원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박지현이 협연한다. 문의 02-3216-3968. /전은재기자 eif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한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